## 건강 칼럼

# 깨알같은 편평사마귀, 면역치료보다 제거가 우선

한 유 리

화접몽한의원 대구점 원장

편평사마귀는 인유두종바이러스의 피부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전염성 질환이다. 손상된 피부에 침입한 바이러스는 각질세포의 유한증식을 일으켜 정상 두께보다 두꺼운 각질덩어리를 만들어내고 이 바이러스에 범벅이 된 덩어리를 손으로 긁으면 긁힌 부분에 '자가 접종'도 주변으로 전염된다. 즉, 최초의 편평사마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염된 것이라면 이후의 것들은 내 스스로 내 몸 구석구석에 심는 형국인 것이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편평사마귀의 유무가 나의 면역력의 척도라 생각해 이것저것 영양제를 챙겨먹고 건강에 신경 쓰지만 꼭 면역력이 허약한 사람만 사마귀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접촉감염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활동이 왕성해, 많은 사람과 만나 접촉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진 물건을 접촉하는 건강한 사람이 더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다. 예를 들어 몸이 너무 약해 거의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편평사마귀에 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평사마귀를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본인의 면역 부족을 탓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지만 이를 통해 자가 치유가 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면역치료로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편평사마귀 타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크기 2~3mm의 작은 사마귀들은 면역치료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타입의 편평사마귀는 팔다리보다는 얼굴과 체간에 주로 생기며 심하면 수백~수천개가 생겨나기도 한다. 누구나 한두개 정도는 있을 법한 사마귀이며 면역치료보다는 제거 시술이 비용과 시간면에서 편평사마귀 치료에 효과적이다.

둘째, 색이 사마귀에 비해 검거나 얼굴의 측면 구렛나루, 머리카락 사이, 가슴의 측면, 등쪽에 있는 편평사마귀는 지루각화증과 반드시 감별해야 한다. 사실 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유는 지루각화증은 면역치료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언급한 작은 편평사마귀는 활동성이 강해 한창 번지고 있는 경우 짧은 기간 면역치료를 진행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지루각화증은 아무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도 효과는 단 1%도 기대할 수 없다. 지루각화증과 편평사마귀의 감별은 확대경 검사로 쉽게 알 수 있으며 진단되면 제거가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얼마 전 발바닥 사마귀와 몸통에 난 사마귀로 다른 데서 치료를 받다가 발은 잘 나았는데 몸통은 호전이 없다고 찾아온 환자가 있었다. 진찰 결과, 몸통에 난 것은 지루각화증이어서 제거했다.

일반적으로 면역치료는 전신 반응이기 때문에 일단 면역반응이 촉발되면 전신 어디든 사마귀는 다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몸통 쪽에 반응이 없었다는 건 사마귀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며 빠른 판단으로 치료 방향을 재설정해주는 안목이 필요하다.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록펠러센터로 옮기는 올해의 크리스마스트리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플로리다에서 작업자들이 캐럴 슐초가 기증한 올해의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트리용 나무를 베어 평상형 트레일러에 옮기고 있다. 높이 약 24m, 무게 12t에 달하는 이 나무는 9일 뉴욕 록펠러 센터에 세워졌다.

### 호놀룰루 기름 유출, 방제 작업 중

지난 7일(현지시간) 미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피어 19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미 해안경비대 한 관계자가 피해 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길이 132m의 화물선에서 기름이 새어 나와 두 척의 대응 선박이 현장에서 기름띠와 흡착포 등을 설치해 작업하고 있다고 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얼마나 많은 기름이 유출됐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사 설

## 가속도가 전망되는 새만금산단

새만금 투자 유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된다. 지난 7월 말에 새만금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새만금 사업법 개정으로 새만금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어 새만금개발청이 전환을 요청함에 따라 이달 중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거쳐 국가산단 전환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 투자 기업에만 적용하던 '장기 임대용지 임대료 1%' 혜택을 국내 기업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기업에게도 외국인 투자 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주고, 개발사업 추진 절차도 간소화 해 활발한 투자가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산단처럼 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다. 이번 결정은 새만금산단 위상 제고와 실질적인 투자 유치, 국가정책 지원 추가 투입 효과 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래형 자동차 부품물 산업과 IT융복합 클러스터 분야에서 동반 성장은 물론 직접적인 정부 정책 지원도 가능하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전기차 제조 기업 SNK모터스와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 새만금 산단 내 장기 임대 용지 33만㎡를 처음 공급한 지난해 10월 이후 16번째 기업이자 전기차 관련 분야로는 6번째다.

지난 5월에는 전기버스 제조업체 에디슨모터스 등 5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업은 새만금 산단 1공구 임대 부지 37만8000㎡에 총 970억 원을 투자해 전기 상용차 등과 관련 부품을 생산한다.

2018년 8월에는 나노스가 전기차 제조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투자 협약을 맺었다. 중국의 체리자동차와 함께 1200억원을 투자해 반조립 방식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고 570여 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다.

새만금산단 장기 임대 용지에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모두 16개사로 늘었다. 투자 금액은 총 9200억 원, 면적은 140만㎡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전기자동차 6개사, 재생에너지 3개사, 기계 부품 및 식의약품, 연구소 등 7개사다.

새만금 투자 유치에 가속도가 붙게 되면 그만큼 새만금에 거는 기대도 커지기 마련이다. 새만금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새만금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를 바란다.

## 일부 전주 시내버스의 난폭운전

일부 난폭한 전주 시내버스 때문에 시민 불편이 크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이자 그 도시의 얼굴이다. 그런데 전주 시내버스의 난폭 운전과 불친절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탑승한 승객들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버스가 급출발하면서 짐을 든 어르신들이 매우 위험하다. 급출발과 급정거를 이어가고, 승객들의 몸이 이리저리 쏠린다. 급정거로 머리를 부딪친 승객도 있다. 그러나 버스 기사는 "병원 갔다 오셨으면 뭐 어떡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일부 승강장에서는 승객이 있건 말건 빠른 속도로 내달린다. 승차를 거부해, 버스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람이 섰는데도 그냥 간다. 버스기사의 불친절한 언행도 승객들을 언짢게 한다. "거 앉아요" 라면서 불쾌하게 어른들한테도 반말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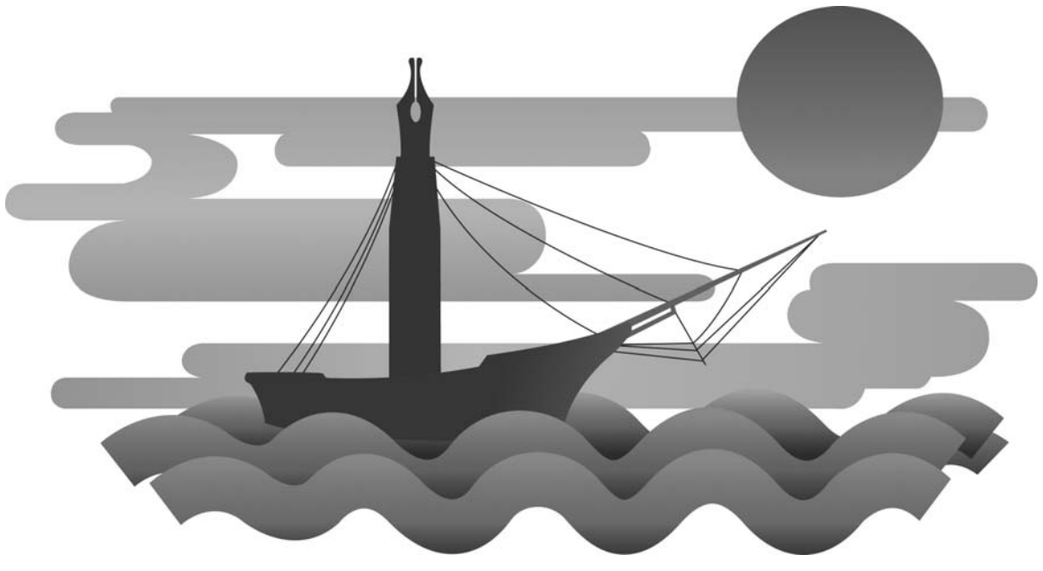
뭘 물어보면 거칠게 탁 쏜다. 대개 짜증나는 말투다. 올해 상반기 전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난폭운전과 승차 거부, 끼임 사고, 출발 시간 미준수 등 시내버스에 대한 민원만 90건이 넘는다. 전주시 5개의 시내버스 회사가 받는 보조금만 한 해 3백30억 원이 넘는다.

운행 횟수만 맞추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버스 회사나 전주시 모두 서비스 관리에는 뒷전인 것이다. 전주시는 "바로잡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한다. 시내버스의 난폭 운전과 불친절 속에 시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다.

전주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을 위해 앞으로 시내버스 사업자와 함께 위법 행위를 한 기사도 처벌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중간 시간표를 도입해 과속과 무정차 같은 위법 행위를 막고, 정시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주시는 시민 모니터단 150명이 직접 시내버스에 탑승해 시내버스 운행 실태를 점검하고 서비스를 평가할 계획이다.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고질적인 운전 관행에 대해서는 단속 공무원을 통해 즉시 단속을 펼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기 바란다.

일부 난폭한 전주 시내버스 때문에 시민 불편이 큰 것을 막아야 한다. 전주 시내버스의 난폭 운전과 불친절을 근절시키는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 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